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’17.9.2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디스플레이 기술 검증에 반도체 전문가?”
(9.25, 전자신문)

1. 기사내용

- ☐ 산업통상자원부가 LG디스플레이 중국공장 증설 관련 수출 승인 여부를 심사할 소위원회 구성
 - 장관은 기존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디스플레이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문가 중심의 소위원회 구성을 지시
 - 정부는 소위원회 위원장에 박재근 한양대 교수를 선임
- ☐ 원자력 발전현황 정책 토론회 현장에도 박재근 교수로 초청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☐ 해당건 검토를 위해 개최한 ‘산업기술보호 전기전자 전문위원회’는 이차 전지 등 전기전자분야를 포괄하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계로 인해,
 - 기술유출가능성, 경제적 영향,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별도의 소규모 전문가 그룹을 구성
 - 위원장은 소규모 그룹 회의 시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선출하였으며, 정부가 위원장을 선임한 사실은 없음
- ☐ 또한, 원자력 발전현황 정책 토론회 현장에는 박재근 교수를 초청한 바 없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안세진 과장 (044-203-4270)
전자부품과 이민호 사무관 (044-203-4272)